

<div> <div>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div> <div>산림청</div> </div>		<div> <div>보도자료</div> <div>대한민국 대전청 한국판뉴딜</div> </div>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쪽	
배포일자	2022. 1. 20.(목)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담당과장	전덕하 과장 (042-481-4180)	담당자	사무관 구동환 (042-481-4218)

생활권 산림 집중 관리로 산불 재해 예방

- 도로변, 주택, 공중 이용시설에 인접한 숲 관리 강화 -

- 지난 2019년 강원, 2020년 울주, 안동 등에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도로변, 주택가 등으로 확산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생활권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권 산림에 대한 임목 밀도를 조절하고 산림 부산물 등의 연료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전문적 숲 가꾸기는 산불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춰 초동 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절실하다.

□

산림청은 산불 발생에 취약한 도로변, 주택, 공중 이용 시설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정부 혁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연간 국비 17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8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도 산불에 특히 취약한 소나무류 침엽수림 위주의 산불 취약지(국유림 1천ha, 민유림 7천ha)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 1 -

○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취약지도의 A, B등급 내 밀도가 높은 소나무류 침엽수림(내화력이 매우 낮아 산불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자체 등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숲관리 기술 등을 계속 개발·보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 취약지도 :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도에 따라 A~D 등급으로 구분, 산불 위험성이 높은 A, B등급은 전체 산림의 30% 수준

□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이 수행한 ‘숲가꾸기를 통한 산불 피해 발생 관찰(모니터링)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 밀도가 같은 소나무 숲에서 동일 조건의 풍속(6m/s)인 경우, 숲가꾸기를 안 한 산림이 속아베기 40% 비율의 숲가꾸기를 한 산림보다 약 1.74배의 피해가 더 발생하였다.

○ 특히 숲가꾸기 미실행지의 경우 실행지보다 ha당 임목 본수가 많고, 가지의 고사율이 높으며, 우거진 정도 또한 높아 숲가꾸기 실행지에 비해 산불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산림과학원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 : 숲가꾸기를 안 한 경우 수관화 전소 피해 61%, 숲가꾸기(속아베기 비율 40%)를 한 경우 수관화 전소 피해 35%

□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관리 소홀로 방치되기 쉬운 생활권 산림은 소나무류 침엽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밀도가 높아 산불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며, “2021년부터 신규 사업 편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계속 추진하여 생활권 산림에 대한 적정 밀도 관리, 부산물 정비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만들어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불입파일: 참고자료 2부

첨부사진: 관련사진 3매

해의감염병

1339

중앙관리본부 콜센터

- 2 -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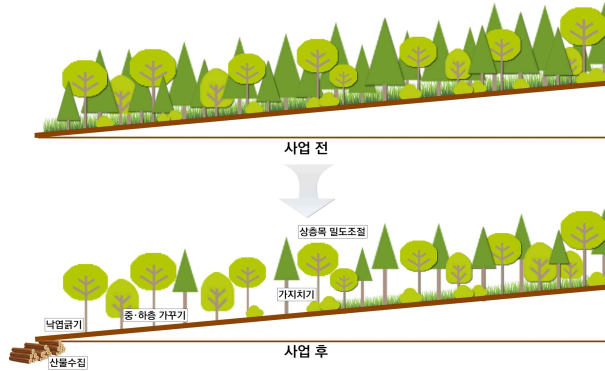
## 산불 예방 숲가꾸기 개념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추진
- 대 상 지 : 산불 취약지역 등 산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 □ 사업방법

- 간벌 · 가지치기, 산물수집 및 하층식생 관리 등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대형 산불 등 각종 산림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주요공정



- 3 -

## 참고 2

##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불방지 연구 및 사례

### □ 간벌재의 산불 방치가 산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06년 강원대)

- 숲가꾸기 실행 시 지하고가 미실행지에 비해 높아 지표화에서 수관화로 전파되는 산불연소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서 **숲가꾸기 실행지가 미실행지에 비하여 산불위험이 낮음**
  - 미실행지는 실행지보다 ha당 임목본수가 많고(400~1000본), 죽은 가지 고사율이 높으며(7.55~25.13%), 율폐도가 높아(10~40%) 결론적으로 **숲가꾸기 미실행지가 실행지에 비하여 산불위험이 높음**

### □ 숲가꾸기 사업지 산불피해 방지사례('08년 화순 운주사)

- (사업내용) 30~50m 폭의 숲가꾸기 실행('06~'07년) 및 산물수집
  - 밀도조절 : 1,000본/ha → 500~600본/ha
  - 가지치기(지하고 7m),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임외반출
- (사업효과) **산림 내 연료량 감소**를 통하여 수관화로 진행되던 산불이 지표화로 축소되어 복사열과 비화물질 동시 감소 → **지상전화 용이**
  - \* 확산속도 분석결과 : (예측) 1.02km/h → (실제) 0.84km/h



### □ 외국의 산불피해(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정책

- 미국은 **대형 산불 피해방지**를 위한 간벌촉진 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정책 (Healthy Forests Initiative)”을 추진
  - \* 산불취약 산림에서의 신속한 간벌 및 벌채 추진 지원
- 일본은 「긴급간벌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재난방지 기능인 보안림의 건강성 확보** 등 산림의 다면적 기능 유지·증대를 위하여 간벌사업을 실행